

# 북스

Books

## 전쟁과 혁명속 역사 이끌어 온 말의 위력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제임스 잉글리스 지음

20세기 최고의 명연설가로 꼽히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13일 “나는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고 연설했다.

이는 종전동화वाद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서 깊이 절망했던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줬다.

이 무렵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항복하기 직전이었으며 영국도 본토를 유린당할 처지를 앞두고 있었다. 처칠은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도 단호한 의지와 용기로 국민을 하나로 결집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명한 저널리스트로 역사와 언어 연구의 권위자인 제임스 잉글리스가 역사를 움직인 군주, 정치가, 혁명가, 군인들의 말을 통해 세계사의 역동적인 흐름을 통찰한 책 ‘인류의 역사를 뒤흔든 말, 말, 말’이 번역, 출간됐다.

저자는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전쟁과 혁명의 순간에 이루어진 연설, 노래, 전쟁구호, 선전, 유명한 구호 등을 총망라해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역사를 움직인 말이 되기까지의 숨은 전략을 파헤친다.

책은 우선 신화와 영웅을 역사 속으로 편입시킨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서 출발해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탐입되며 무수한 정복전쟁이 치러진 중세, 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고 인권에 대한 각성

이 시작된 근대를 차례로 조망한다.

이어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뒤얽혔던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의 논리,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 속 말의 전쟁을 되짚으며 세계사적 순간에 초점을 맞춘다.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어온 진보의 역사도 함께 살피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최후 변론에서 봉건사회의 폐단에 대한 고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불의에 맞선 선각자들의 외침은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선다.

책은 역사의 전환점이 된 연설을 선별하되 정치와 종교, 정부자와 피정부자, 제국과 식민지, 위정자와 사회운동가 등의 대립되는 견해를 고루 수록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며, 역사적 자료를 그대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설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나 숨은 의의, 전략적인 표현까지 분석함으로써 역사를 통해 현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500여 쪽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도 각 관마다 친절히 해설을 곁들여 쉽게 읽힌다. 사이사이 부록처럼 끼워 넣어진 관련 자료와 풍부한 도판은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며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말의 흥수 속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어떤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듣는 말의 이면에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는 유익한 책이다.

〈작가정신·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ju.co.kr



윈스턴 처칠 전 영국총리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어권 연설의 백미로 꼽히는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승리의 일념을 불어넣었다. 〈작가정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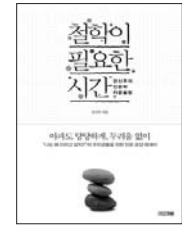


새책



지하의 시간들

▲지하의 시간들=2009년 공쿠르상 후보에 올랐던 프랑스 작가 델린 드 비강의 소설. 파리에서 살아가는 두 남녀의 하루를 통해 이상의 보이지 않는 폭력과 고독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유능한 카리어우먼이자 세 자녀를 씩씩하게 키우는 엄마인 ‘마틸드’는 직장 직속상관과의 갈등으로 삶이 파헤쳐진다.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인 ‘티보’는 열렬히 사랑한 여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문예중앙·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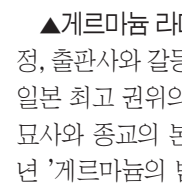
철학이 필요한 시간

▲철학이 필요한 시간=철학자인 김신주씨가 동서양의 인문고전을 넘나들며 정제성,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철학적 조연을 제공한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공자의 ‘논어’ 등 48가지 인문고전을 통해 철학자들의 철학적 사유가 현실적 삶의 고민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 〈사계절·1만7800원〉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암살사건

▲세계사를 바꾼 28가지 암살사건=존 F. 케네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박정희 등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암살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에 이어 2인자로 급부상했던 ‘린바오’(林彪)의 비행기 추락 사건, 전 러시아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의 독살 사건 등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암살 사건과 미수로 끝난 암살사건도 소개한다. 〈아이콘북스·1만3000원〉



게르마늄 라디오

▲게르마늄 라디오=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출판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작. 하나무라 만게츠의 작품으로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다. 극단적인 성과 폭력의 묘사와 종교의 분질, 인간의 이성을 과해쳐 화제를 모았다. 1999년 ‘게르마늄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됐을 당시에도 ‘18세 미만 구독불가’ 판정을 받아 한-일간 외설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상북스·1만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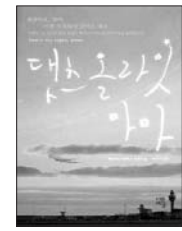
린다 브렌트 이야기

▲린다 브렌트 이야기-어느 흑인 노예 소녀의 자서전=미국 흑인 노예 여성이 쓴 최초의 자서전. 1861년 출간됐으며,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태어난 린다 브렌트(지은이의 가명)가 끊임없는 성적 괴롭힘과 7년에 가까운 유배 생활까지 견뎌낸 끝에 북부로 탈출하는 실제 경험을 담고 있다. 1960~197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에 큰 영감을 준 책으로 꼽힌다. 〈뿌리와의파리·1만5000원〉



조선의 여성

▲조선의 여성 역사가 다시 말한다=어우동·장유수·혜경궁 홍씨·황진이 등 이미 잘 알려진 여성들부터 신대영·이숙희·남평 조씨, 계절향 등 이름이 다소 낯선 여성들까지 그들의 삶을 통해 살펴본 조선의 역사를 담았다. 책은 여성 인물이라는 프리즘을 이용해 조선 사회를 비추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여성들이 처했던 시대적 환경을 설명한다. 〈너머북스·1만5500원〉



댓츠 올 라잇 마마

▲댓츠 올 라잇 마마=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소재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감동적으로 그린 소설. 주인공 에바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맞는다. 그녀는 어머니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방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감춰진 삶을 이해하고자 엘비스가 사는 펠리피로 향한다. 책 제목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데뷔곡으로도 잘 알려진 흑인 가수 아서 크루핀의 노래다. 〈더네세상·1만3000원〉

### 카프카 문학세계 체험 단편집 ‘여행자’ 나와

‘변신’ 등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가 프란츠 카프카



(1883~1924년)의 짧은 소설을 엮은 소설집 ‘여행자 예찬’이 나왔다.

‘황새 같은 새’ ‘법 앞에서’ ‘황제의 전갈’ 등 마흔네 편의 작품이 수록됐으며, 대부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카프카의 독특한 개성만큼이나 다채로운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준다. 소설과 단편, 소외와 부조리, 슬픔과 기쁨, 불안과 좌절, 희망과 의지 등 삶을 사유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어디에도 예측되지 거부한 카프카의 심원한 문학세계와 상상력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다.

〈하늘엔웃·1만원〉 /김대성기자bigkim@kwangjuju.co.kr

### 동물권리선언

우리가 먹고 사랑...



가축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등 규제적으로 전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조명해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마크 베코프 미국 콜로라도대 생태학 명예교수가 쓴 ‘동물권리선언’은 공장식 가축농장과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갖가지 동물 실험의 실상을 파헤치면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점점에 달했다면 인간이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인간과 동물이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인간이 동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모든 동물은 지구를 공유하며 우리는 더불어 산다’, ‘모든 동물은 생각하고 느낀다’, ‘모든 동물

은 온정을 느끼며 온정 받을 자격이 있다’, ‘교감은 배려로, 단절은 경시로 이어진다’ 등을 제시한다.

또한 “인간 역시 원래 온정이 많았지만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바람에 선량한 마음을 잃었으며 동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정의 발자국’(compassion footprint)을 넓힐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창·1만2000원〉

할 헤르조그 미국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심리학과 교수의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하는 동물들’은 인류동물학적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분석한 책이다.

인류동물학은 아동기 동물 학대와 성인기 폭력의 상관성, 감이지 산책이 체중



에 미치는 영향 등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연구하는 최신 학문 분야다.

저자는 동물권익보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모순된 심리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삼겹살은 맛있게 먹으면서 살처분되는 동물들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모피 코트를 입은 채 애완동물을 사랑스럽게 안고 가는 여성, 돼지고기는 거부하지만 고통어는 먹는 ‘채식주의자’ 등 인간이 동물들에 대해 이처럼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사고 자체가 본능, 학습, 언어, 문화, 직관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데이트에 성공하려면 감이지를 데려가는 게 낫다’, ‘애완견을 잘못 선택하면 가정이 파탄할 수 있다’ 등 흥미로운 연구결과와 사례도 소개한다.

〈살림·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ju.co.kr

### 동물과 인간은 지구를 공유하며 더불어 산다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SINCE 1982**  
[www.kjhr.com](http://www.kjhr.com)

# 국제보청기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매장안내** ★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225-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